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차문화 2023 봄

통권 149호 (사)한국차문화협회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3 Vol. 149

봄

茶文化



차문화의 귀중한 자료 '다천' 수록



이산해(李山海, 1539~1609)

이산해(李山海, 1539~1609)는 한산 이씨 명문가 출신으로 목은 이색(李穡)의 후손이면서 토정 이지함(李之菡)의 조카이다. 복인의 영수라는 학문적·정치적 위상을 가졌던 관료로 실용을 중시한 관료 학자이다.

이산해의 차시로는 '덕장산인에게 주다'를 비롯하여 '산중잡영', '계절', '서쪽 여울', '선궁', '녹음', '봄날 백암사로 가는 도중에', '다천기' 등이 있다. 이산해의 차시에서 '다천기'는 우리 차문화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다천기'에는 지금의 다천에 대한 기록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다천은 지금의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로 이곳이 예전에는 차의 산지였거나 혹은 차를 끓이기에 적합한 냇물이 흘렀음을 이산해의 '다천기'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차가 생산되는 곳이므로 이렇게 명명하였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차를 끓이기에 알맞아서 이렇게 명명한 것이라도 한다. 『아계유고』 권 3권에 실려 있는 '다천기' 문구는 차문화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계절은 덧없이 흘러 잠시도 멈추지 않아 신록이 짙은 숲속에 피꼬리가 노래하네,
꿈에 본 고향은 천 리 멀리 아득하니
봄 지난 나그네의 귀밀털은 몇 가닥이나 남았는가?
푸릇한 방초는 넓은 들판에 이어지고
떨어진 꽃잎에 작은 시냇물이 붉게 물들었네.
인생 백 년 분수 따라 먹고 마시면 그만이니
찾사발과 시통으로도 이 생애 족하다네.

이 시는 모든 것을 초월한 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복인의 영수 자리에 올랐던 정치가의 면모보다는 안빈낙도한 자연인 이산해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

[표지 이야기]

생명이 움트고, 땅이 깨어나고, 나무가 자라는 봄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차를 통해 하나가 되고 교감을 나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 활기찬 봄이면 좋겠다.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소식지

2023년 봄호 (통권 149호) | 발행·편집인 최소연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편집부장 고만송
04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F. 02) 719-7815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茶文化

2023 Vol. 149 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일상에서 깃대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006 특집 1 2023 신년하례식
- 012 특집 2 동계연수회
- 022 특집 3 대구 범어도서관 학술 심포지엄
- 026 특집 4 명예이사장님 8주기 추모제
- 030 협회 소식 | 심의 / 정기총회 및 2022년 송년회 / 2023년 1월 정기총회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6 고전에 길을 묻다 | 하멜 표류기
- 040 선조의 품격 |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
- 044 특별기고 | 연구논문 기고
- 050 건강한 삶 | 대상포진
- 052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60 마음을 채우는 풍경

茶情茶感 • 찾임이 맺어준 인연

- 061 지부사랑방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 086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088 광고
- 089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090 우송료 명단

일상에서 깃다거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인 모두의 지혜가 빛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4분기에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비롯하여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제60회 동계연수회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는 임원 및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우리 협회도 활기차게 뛰는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빨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챗 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연일 화제입니다. AI가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벌써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이 관공서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 기술을 전수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윤리교육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한 미래가 다가와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꾸어 가고 인간의 영역에 깊이 관여한다고 하여도 결국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禮)와 도리 까지는 관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차문화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초의는 다도에 대하여 “따는 데 그 묘(妙)를 다하고, 만드는 데 그 정(精)을 다하고, 물은 진수(眞水)를 얻고, 끓임에 있어서 중정(中正)을 얻으면, 체(體)와

신(神)이 서로 어울려 건실(健實)함과 신령(神靈)함이 어우러진다. 이에 이르면 다도는 다 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행위 안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자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와 눈을 현혹시키는 다채로운 이미지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문화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점점 차문화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지고, 배우려는 사람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도의 좋은 점을 이해하고 다가오고 싶어 하나 차문화를 접하는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자세와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문제입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중국 조주 선사는 ‘깃다거(喫茶去)’라는 말을 항상 하었다고 합니다. 깃다거(喫茶去)는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조주 선사는 “차나 한잔 하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제자가 “스님, 진리를 묻는 이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자네도 차나 한잔 하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깨닫지 못한 절대 진리를 말과 개념으로서 찾으려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이며, 삶의 깨달음은 일상 속의 명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깃다거의 정신은 차와 함께 하는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회로애락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며 선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하나 된 마음으로 2023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다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신년하례식을 간소하게 진행했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2023년도 신년하례식을 서울 마포가든 호텔에서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및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최소연 이사장님께 감사패 및 선물 증정

협회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 마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신년하례식을 거행했다.

신년하례식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이림, 강순란, 박광옥 부회장단과 각 지역의 지부장, 협회 이사,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신년회에는 교토 지부 조화미 지부장과 일본 회원 등이 참석하였고,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광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식은 최소연 이사장이 입장하면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선배 차인에 대한 묵념, 진다의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진다의례는 최소연 이사장이 단상에 자리하면서 진행되었다.

먼저 최성미 전수장학생이 최소연 이사장님께 헌화를 시작으로, 이금숙 신임 이수자가 최소연 이사장님께 감사패 및 선물 증정식을 했다.

감사패 증정식에는 이명숙 신임 이수자가 대표로 전달했다. 감사패는 2021년 강희옥, 박혜란, 유미



현, 유현주 이수자와 최성미 전수장학생을 비롯하여 2022년 권혁화, 신은주, 이금숙, 이명숙 이수장과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마음을 담았다.

이수자 일동은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이사장님의 크신 뜻과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 규방다례 발전에 앞장

권혁화 이수자와 이기분 전수장학생의 편지 낭독이 있었다. 권혁화 이수자는 “새로 이수자가 된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규방다례의 정신과 절차, 동작, 예법 등을 전수하고 연구하며, 전승 공연 등으로 홍보할 것이며, 한국 차문화의 규방다례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낭독했다.

이기분 전수장학생은 “규방다례는 2002년 12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제1대 보유자 고 이귀례 이사장님, 2대 보유자이신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을 배출, 한국 차문화 전반에 걸쳐 그 원형을 보존하고 올바른 전승을 통해 대내외적으로는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한국의 차문화 발전에 미약하나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혁화 이수자와 이기분 전수장학생의 편지 낭독 후 이수자와 임원들은 최소연 이사장님께 세배를 올렸다. 최소연 이사장님께 세배 후 임원과 회원들은 상호 간 뽀는 절로 맞절하였다.



최소연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여기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협회는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입니다. 토끼는 온순하고 암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적응에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계묘년을 맞아 우리 협회의 회원 여러분들도 커다란 바깥일보다는 다정다감하게 서로를 보듬어 가며 우애를 돈독히 하고 내실 있게 하는 한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라며 힘찬 2023년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최소연 이사장,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 협회 부회장은 떡 가름 행사를 하며, 한해를 힘찬 출발을 알렸다. 떡 가름에 이어 협회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의 건배사와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최소연 이사장 회원 모두에게 세뱃돈 지급

2023년도 신년하례식 찾자리 준비는 서울제1지부와 서울제2지부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신년하례식에는 많은 협찬이 있었다. 협찬해 주신 분은 가름떡 강정자 부회장, 진다의레 꽃, 과일, 다식 등은 신임 이수자와 전수장학생이 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단출하게 진행되었던 신년하례식은 모처럼 각 지부 및 해외 지부까지 참석하여 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이날 최소연 이사장은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새해 세뱃돈을 주며,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덕담을 해 주었다. 우리 협회는 신년하례식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된 마음으로 2023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신년하례식 후에는 2023년도 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제60회 동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개최 전국 각 지부 임원과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지난 2월 18일 오후 1시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서 한국차문화협회 제60회 동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과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당일로 개최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처럼 전국 각 지부를 비롯하여 임직원 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전국 27개 지부 300여 명 참석

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60회 동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임원과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1부 개회식 및 특강에서는 국민의례,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이사장님 축사, 협회가 제창,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협회는 하계연수회와 동계연수회를 1박 2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1박 2일로 하던 연수회를 당일로 치르게 되었고, 이번 연수가 당일로 치러지는 마지막 연수회가 되길 소망해 본다.



오전 일찍 전국 각 지부에서 올라온 임원과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겨운 다담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둘씩 도착하는 회원들의 표정에는 봄기운이 완연했다. 모두가 얼싸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에서 차인들의 넉넉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동계연수회 진행을 돕기 위해 인천지부(조영아 지부장)는 전날인 10월 17일부터 멀리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행사 당일 낮 12시 30분부터 연수회 접수를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회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다식을 전달했다. 또한 서울제2지부(박광옥 지부장)는 연수회 찾자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전국 각 지부 회원 등이 모두 참석하고 최소연 이사장님 입장하면서 제60회 동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제1부가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축사에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입춘(立春)이 지나고 벌써 내일이면 우수(雨水)입니다. 우수는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오늘, 이렇게 좋은 일로 차인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며 회원들을 다시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소연 이사장은 “오늘 인성차문화지도사 2급과 3급 자격증을 받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차문화협회의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문화 보급과 발전



동계연수회에서 접수를 담당한 인천지부



은 물론 행다 연습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차인으로서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오늘 공로상과 봉사상, 화목상을 받는 회원들은 협회와 지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로 그 어떤 상보다 의미 있는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상하는 모든 분께 협회를 대신하여 큰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차문화를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차문화를 발전시키고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강정자 부회장의 지휘 아래 협회가 제창이 있었다.



동계연수회에서 찻자리를 마련한 서울제2지부



심폐소생술, 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

특강에서는 조용연 전문 응급처치사의 지도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시행했다. 16명이 한 조가 되어 실습한 심폐소생술에서 회원들은 모두가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실습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환자를 상대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불어 넣는 행위이다. 심정지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평소에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용연 강사는 강조했다.

심정지가 왔다고 하여 바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먼저 환자의 호흡과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신속



하게 도움을 청해 119에 구조 요청을 부탁한 다음, 환자가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된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양팔을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게 쪽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한다. 강하고 빠르게 해야 효과가 있으며, 성인 심정지의 경우에는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120회로 하여야 하며, 가슴의 압박 깊이는 약 5센티미터로 압박해야 한다. 이때 숫자를 세며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환자가 회복되거나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회원 한 명씩 구조활동을 펼친 심폐소생술에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따라 했다. 심폐소생술에서 4분은 매우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여러 원인에 의해 심장이 뛰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멈추고, 뇌에 4분 이상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생존해도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위험이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혈액 순환과 호흡을 돕는 방법이다.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이 순환돼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3배 이상 높다.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해둬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어느 날 눈앞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제32회 정기총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거행

1부 개회식과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동계연수회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동계연수 수료식에 앞서 제 32회 정기총회가 최소연 이사장과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32회 정기총회에서는 강희옥 감사로부터 감사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민달래 팀장의 2022년도 수지결산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기부금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이어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수료식에 앞서 신임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신임 지부장에 서울제1지부 이기분, 이사에는 류소영, 장효순 전문사범이 임명되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자격 취득자 전체 선서로 전남지부의 강현식 지도사범이 선서했다. ㉸



신임 임명장



선서



개근상



준사범



공로상



봉사상



화목상



지도사범



임원 단체사진



강원지부



광주지부



경남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부산지부



서울제2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전남지부



충남지부

박광옥 부회장 ‘규방다례의 정립과 전승 활동’ 주제로 대구 범어도서관에서 학술 심포지엄 발표하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대구 범어도서관 김만용·박수년홀에서 한국 차문화의 원형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2022년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으로 열린 한국 차문화의 원형 모색 - 규방다례와 사찰다례에 협회 박광옥 부회장(규방다례 전승교육사)이 ‘규방다례의 정립과 전승 활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했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협회 박광옥 부회장을 비롯하여 강정자 부회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심순옥 대구경북제1지부 이사와 규방다례보존회 유현주 팀장,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이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계명·목요철학원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2022년 차문화 학술 심포지엄은 총 5회에 걸쳐 진행했다. 1회, 「차: 인문의 옷을 입다」, 2회, 「차나무: 꽃과 열매가 만나다」, 3회, 「한국 차문화를 읽다」, 4회, 「한국 차문화와 대중화」, 5회, 「한국의 차문화, 다례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마지막으로 ‘한국 차문화의 원형 모색-규방다례와 사찰다례’가 열렸다. 박광옥 부회장은 ‘규방다례의 정립과 전승 활동’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발표를 하여, 참석한 대구시민 및 차문화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광옥 부회장이 발표한 ‘규방다례의 정립과 전승 활동’은 우리 협회가 펼치고 있는 차문화와 한국 차문화의 원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박광옥 부회장은 ‘규방다례의 정립과 전승 활동’ 발표에서 ‘한국의 차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격을 갖춘 전통문화로써 차문화를



계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로부터 차인이라 불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설 이귀례 선생과 규방다례의 정립

이귀례 선생은 한국 현대 차문화 1세대들과 함께 차인회를 조직하였고, 이어서 한국차문화협회를 창립하여 전통 차문화의 보급에 전념하였다. 한국 차문화협회의 창립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 등을 주도하였던 이귀례 선생은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다례인 규방다례를 고증·복원함으로써 이귀례 선생만의 다법을 정립하였다.



문화의 보급과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인설차문화전-차예절경연대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지속해서 차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예선을 거쳐 참가하는 대회로 국내 최대의 차예절경연대회이다. 2022년 현재 제23회가 개최되고 있다. 해외 활동은 중국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중국 복건성 무이산 시의 초청을 받아 중국 만정무이차회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1993년 한·중 차문화교류전, 1995년 한·독 국제차문화교류전에서 규방다례 시연, 1996년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시와 함께 교류 행사를 개최, 1999년 미국 메릴랜드주 모아 시에서 개최된 제22회 한인 민속대잔치 참가, 1997년 인도, 2000년 스리랑카, 대만 방문 등을 방문하여 차문화 세계에 소개했다.

박광옥 부회장은 주제 발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발자취와 현재 한국차문화협회에 대해 소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규방다례의 전승 활동

전국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는 지난 1998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전국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회로 국내 최고의 청소년 차문화 축제이다. 2022년 현재 제25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의 차인 발굴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국차인큰잔치는 지난 1990년 처음 시작되었다. 선고차인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차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차인들이 마련한 들차회를 통해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차와 차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음식경연대회는 잔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다. 2022년 현재 제33회 전국차인큰잔치가 개최해 옴으로써 차



명예이사장님 8주기 추모제 거행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말씀 아직도 생생

지난 2월 26일(일) 오전 11시 분당메모리얼파크에서 선덕차인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서거 8주기 추모제가 최소연 이사장과 협회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명예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기나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찾아뵈었다. 코로나와 추위를 이겨내고 봄기운이 완연한 분당메모리얼파크에는 아침 일찍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이 분주히 추모제를 준비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8주기가 되었다. 8주기가 되었지만 바로 어제처럼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말씀이 귓가를 맴도는 것 같다.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 하라’는 말씀과 함께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란 말이 새삼 떠오르는 8주기 추모제였다. 오전 11시 박광옥 부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추모제에서는 명예이사장님께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헌화에는 강희옥 감사와 이금숙 이수자가 했다. 헌화에 이어 이사장님 내외분과 유가족의 헌다가 진행되었다. 또한 외빈과 임원, 이수자, 사범, 회원 순으로 헌다를 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이수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추모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임원 및 회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귀례 명예이사장님도 우리들의 화합된 모습을 보고 가슴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명예이사장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 차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예이사장님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생전

에 명예이사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협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명예이사장님의 8주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어 큰 힘이 되었다. 오늘 점심(한방 삼계탕)과 일인다기 선물을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었다. 강순란, 연규남, 장영애 이수자께서 난화분. 최영숙 이수자께서 메밀묵. 박경숙 이수자께서 도라지정과, 호두땅콩정과, 송화다식. 박혜란 이수자께서 떡 한말(20만원). 인천지부에서 과일과 꽃바구니. 이승조, 정진영 전 사무처장이 꽃바구니. 서울제1지부와 인천지부에서 꽃바구니.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현금(10만원)과 반찬. 최성미 전수장학생이 금귤정과. 허유진 서울제2지부 전문사범이 다식. 서울제2지부 이경숙, 조상철 전문사범이 마카롱 등을 협찬해 주었다. 모두가 협조해 준 덕분에 8주기 추모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8주기 추모제에서는 인천지부 회원이 차우림을 도와주었다. 이밖에도 현금(10만원) 찬조를 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이림, 강정자, 차영민, 박숙희, 김가영 부회장과 조정미 지부장, 최정희, 이명숙 이사께서 해 주었다. 특히 먼길 마다 안 하시고 참석해 주신 최영숙 지도사범, 강정자 부회장, 박경숙 지부장, 박혜란 지부장께 감사하다. 인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8주기에 함께 해 준 이수자 외 임직원들 노고가 우리나라 차문화 발전으로 승화되길 기원한다. ❷

엄마를 그리며...

일주일에 대략 한 번 정도 엄마의 산소를 찾는다. 갈 때마다 엄마가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엄마의 생일이 설날인 관계로 내게 있어 설날은 큰 의미가 없었다. 엄마는 음력 선달그믐 자시(子時)에 태어나 1자가 4개씩 들어가 어른들은 엄마가 학자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적중했다.

장자의 『도덕경』에 상선약수 수선이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악고기어도(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故幾於道)라는 말이 있다. 흐르는 물은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물은 만물을 길러내지만 결코 공을 과시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엄마는 상선약수 같은 분이셨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을 부를 때 나는 ‘엄마’라



“흐르는 물은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물은 만물을 길러내지만 결코 공을 과시하지 않는다.
엄마는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분이셨다.”

고 부른다. 그것이 입에 붙었기 때문이다.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눈물이 뿜 도는 것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 하나이다. 아마도 엄마라는 말 속에는 너무도 다양한 함의(含意)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다. 엄마가 했던 말들이(積善之家必有余慶)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을 보면 아직도 ‘엄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 가족은 추석이나 설날에 해외로 가족 여행을 갔다. 일본 벳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유명한 빵가게에서 케이크를 사 우리가 묵고 있었던 료칸에서 엄마와 이모(이길여 총장), 남편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와 케이크 커팅식을 하며 생일 파티를 열었다. 참으로 행복한 한 때였다. 빵 가게에서 사온 케이크 상자 속에는 케이크를 받쳐 먹을 수 있는 키다리아저씨 접시가 함께 들어 있었다. 기념

으로 주었던 키다리아저씨 접시였다. 엄마와 이모는 료칸에 놓고 나왔는데 나는 기념이 될 것 같아 키다리아저씨 접시를 가져왔다. 그것이 집을 정리하면서 내 눈에 띄었다. 그리곤 그 때 일이 떠오르며 이번 생일에는 케이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설날, 나는 남편과 함께 매번 해 왔던 쇠고기 못국이나 떡국이 아니라 케이크를 생일상에 올렸다. 케이크를 생일상에 올리고 보니 엄마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는 이곳 분당에 당신의 뒷자리를 직접 마련해 두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좀 더 아늑하고 따뜻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겨울철 엄마의 산소를 둘러보다보면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가 웬지 송구하다.

소박하고 평범했던 엄마와의 일상이 부쩍 그립다. 엄마와의 사소한 의견충돌까지 그리워지는 것은 나이 듦의 징조일까? 때론 천륜(天倫)으로 때론 사제지간(師弟之間)으로 엮었던 당신과의 인연이 진정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는 중이다.

- 당신의 딸로 태어나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딸 소연이가

2023년 1월 22일



긴장감 속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과 2급 심의

행다례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중요



2023년 1월 7일 새해 들어 첫 행사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2급과 규방다례 실기 심의를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시행했다.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심의에는 최소연 이사장(심사위원장)과 박광옥 부회장이 규방다례 심의 위원으로 심사를 했고, 생활다례는 김가영 부회장, 차영민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실기 심의에 앞서 최소연 이사장은 “아침 일찍 심의를 위해 협회에 올라오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연습한 대로 충분한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본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그동안 심의를 위해 연습한 회원들을 위로했다.

박광옥 부회장은 “행다례도 중요하지만, 몸가짐이 중요합니다. 심의를 보는 회원들은 머리를 단정히 하고, 몸에 있는 장신구를 제거하며 한복을 깨끗하



게 다려 입고 심의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심의를 보는 회원 여러분들은 잘 지키신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그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라며 회원들의 몸가짐에 대해 말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및 규방다례 실기 심의를 위해서 인천지부 조영아 지부장을 비롯하여 서울제1지부 이석예 지부장, 이막동 이사, 이기분 이사, 이남숙 이사, 강의옥 감사와 서울제1지부 회원 등이 실기 심의를 지원했다.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과 2급 심의를 받는 회원들은 긴장된 모습으로 평소 연습한 대로 심의를 보았지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보았다. 배웠던 것이 순간적으로 잊은 회원도 있었으며, 잘 하려다 실수로 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모습을 본 최소연 이사장은 “시험을 본다는 것은 긴장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를 받는 분 중에는 실력이 출중한 분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분도 있습니다. 이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라며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기분 서울제1지부 이사는 심사의원 및 봉사자들을 위해 점심을 손수 마련해 대접했다. 🍽️

2022년 마지막 정기총회 및 송년회

한해를 마무리하며 훈훈한 송년회 가져



12월 정기이사회와 송년회가 2022년 12월 6일 오전 11시 협회 교육장에서 열렸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강정자, 박광옥, 차영민 부회장과 서울제2지부 이석예 지부장, 인천지부 조영아 지부장,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1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2022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욱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정기총회입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로 진행했다. 먼저 민달래 팀장은 제23회 전국 인설차문화전과 제33회 전국 차인큰잔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보수교육, 임원, 이수자



교육, 제66기 지도사범 교육, 2022년 행안부 공익사업 결과를 보고 했다. 이어서 2022년 12월 자격검정 및 제60회 동계연수회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2022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에서는 최소연 이사장님의 이름으로 3행시 지으면서 훈훈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재치와 위트로 송년회 내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3행시 중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협회 발전을 위해 지어준 차영민 부회장의 3행시를 대표로 소개한다.

최 : 최근에 병원을 드나들다 보니

소 :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더군요. 해서
연 : 연연 세세 한국차문화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협회 회원과 임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이원종 전 교육위원은 수급불류월(水汲不流月)이라는 말로 차와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세월은 흘렀지만 차인으로서의 삶은 그대로라며, 차와의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해를 마무리한 이 날 송년회는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활기찬 2023년도를 맞이하고자 하면서 마무리했다. ☺

마포 가든호텔에서 2023년 1월 정기이사회 개최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류소영, 장효순 협회 신임 임원 승인



협회는 2023년 1월 12일 오후 4시 마포 가든호텔 대연회장에서 2023년도 1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박광옥 부회장의 개회 선언 및 성원 보고, 이사장님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 상정 및 토의로는 총 5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제1안은 2022년도 사업 실적서, 제2안은 2023년도 사업계획(안), 제3안은 1월 자격검정 진행보고, 제4안은 제60회 동계연수 및 수료식 계획, 제5안은 제67기 지도사범 교육계획이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23년도 신임 지부장으로 서울제1지부 이기분 이사가 지부장으로 결정되었다. 지부장 결정은 지난 2022년 12월 정기이사회 때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은 오랫동안 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봉사와 협회 발전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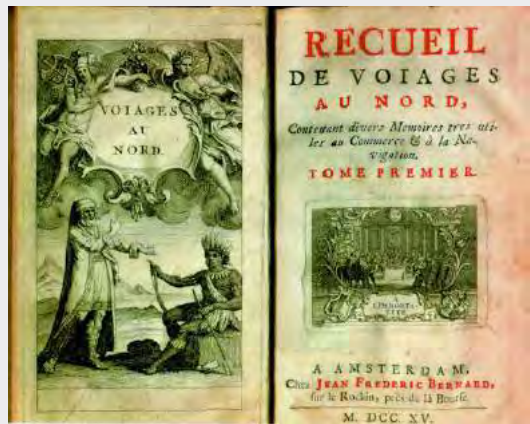
이어서 2023년도 신임 이사로 서울제2지부 류소영 전문사범과 서울제2지부 장효순 전문사범이 추천되었다. 두 신임 이사는 서울제2지부에서 각종 봉사와 행사 지원으로 큰 신임을 얻었다. 앞으로 협회 발전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서울제1지부장으로 추인받은 이기분 이사와 류소영, 장효순 이사는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님들께 '작게는 각 지부와 크게는 협회 발전에 앞장서고, 차인으로서 품위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년하례식 후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는 올해 있을 다양한 행사에 임원 및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

조선 체류 경험을 담은 하멜 표류기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서양인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최초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의 일이다. 360여 년 전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멜표류기_조선일보 제공

불과 360여 년 전 조선을 민낯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천문학자는 조선의 천문지식에 관해서 보고 싶을 것이고,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조선의 법률체계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그만큼 자신의 관점에서 그 사회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료로 기록되고 있는 『하멜 표류기』는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한 보고서 였다고 하니 참 재미있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멜 표류기』의 실제 이름은 아주 길다. 『야하트 선 데 스페르베르 호의 생존 선원들이 코레 왕국의 지배하에 있던 켈파르트 섬에서 1653년 8월 16일 난파당한 후 1666년 9월 14일 그 중 8명이 일본의 나가사키로 탈출할 때까지 겪었던 일 및 조선 백성의 관습과 국토의 상황에 관해서』이다. 여기에서 야하트 선



하멜 일행이 상륙했던 제주도



『하멜 보고서』가 들어 있는 동인도 회사 공문서
_우리역사넷 제공

데 스페르베르 호는 네덜란드 배의 이름이고, 켈파르트 섬은 제주도를 서양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다.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서양인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서양에 최초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의 일이다. 360여 년 전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은 조선의 실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멜 일행은 조선에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때 본 것들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 『하멜 표류기』이다.

폭풍으로 난파된 배에서 탈출한 36명의 하멜 일행은 간신히 제주도에 상륙한다. 그때가 1653년으로 조선에서는 효종이 집권하던 시절이었다. 저자인 하멜은 조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멜 표류기가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멜이 네덜란드 스페르베르호 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다.

그는 스페르베르호가 난파되어서 조선에 머문 13년 28일 동안 있었던 내용을



효종을 알현하는 하멜 일행_우리역사넷 발췌



하멜 일행의 생활_우리역사넷 발췌

기록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봉급을 받기 위해 동인도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책으로 1920년에 발간하였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멜 표류기』이다.

1650년대부터 1960년 대까지 13년 28일 동안 서양의 눈으로 본 조선 모습은 어땠을까? 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하나는 난파와 표류에 관한 기술, 또 하나는 「조선국에 관한 기술」로 되어 있다. 난파와 표류에 관한 기술은 “1653년 1월 10일 네덜란드를 떠난 포겔 스트루이스(Vogel Struuijs)호는 6월 1일 자바섬의 바타비아(Batavia)에 도착했다. 선원들은 그 곳에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총독 명령에 따라 스페르베르호로 갈아타고 대만으로 출발하여 6월 14일 도착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대만의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는 네덜란드인 레세르(C. Lesser)를 임지로 데려다주는 일이었다. 임무가 끝나자 다시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7월 30일 나가사키를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해 8월 11일까지도 스페르베르호는 대만 해협을 빠져 나오지 못하다가 풍랑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조선국에 관한 기술에는 우리의 지리·풍토·산물·정치·군사·풍속·종교·교육·교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1600년 전에 그들은 담배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때 일본인들이 그들에게 담배 재배술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일본인들은 그 담배 씨를 남반국에서 가져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남반코’라고 부른다. 이 나라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

는데, 여자들은 물론 네댓 살 되는 아이들도 담배를 피운다.”라는 글이 있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네댓 살 되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서양인들의 눈에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충격이다.

또한 형벌에 관해선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부분도 실려있다.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면 그 아내는 땅에 목만 내놓게 묻은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 톱으로 쳐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내용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면 그 이유가 온당하다면 죄를 묻지 않았다. 이렇듯 지금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하멜 표류기에 쓰여있다.

그것이 1650년 조선의 자화상이다. 이렇듯 360여 년 전 조선의 사회상을 소상하게 기록한 하멜 표류기는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은 좀더 객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년 현재 세계 10위 권인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불과 360년 전만 하여도 세양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부흥을 이뤄 선진국 도약을 앞에 두고 있다. 과거 속에서 현재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하멜 표류기』를 숙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㉞



하멜기념비

봄빛 속 차 한 잔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총복지부장



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라. 때로는 형제보다 더 나를 이해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다 털어내도 편안하다. 오랜 친구는 삶의 보배이다. 좋은 벗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풍요롭고 즐겁다.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서로의 생활과 잘잘못을 이야기하며 성실한 삶을 만들어나간다.

황홀한 잎새를 떨어뜨린 걸
후회하지 않아요

연두색 소망이 가지 위에
돌아날 봄을 기다리니까요.

남정림 시인의 시 「2월의 나무」이다. 봄을 기다리는 2월의 나무는 꿈의 대명사이다. 때로 삶이 한없이 힘들어도 꿈은 우리를 일어나게 한다. 나를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다.

공자는 나를 발전시키는 친구는 곧고(直), 도리를 지키며(諒), 견문이 넓은(多聞) 사람이라 하였다. 강직한 벗은 나의 허물을 말해 주고, 성실하게 나를 변화시키며 많은 지식으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의 정의를 공자는 어떤 의도로 간결히 확고하게 이리 한 걸까.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통하는 우의(友誼)를 표현한 이색(李穡)의 《목은시고(牧隱詩稿)》에 실린 <친구 김안렴사(按廉使)가 보낸 차가 때마침 이르다(金按廉送茶適至)>를 읽으며, 좋은 친구의 면면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자.

我欲寄詩去	내가 편지를 보내려던 차에
君方送茶來	바로 그때 그대가 보낸 핫차를 받았다고
適在一日間	하루만 지났어도 어긋날 뻔했으니
幸哉眞幸哉	얼마나 다행인가 참으로 다행일세
雖云偶然爾	이 기쁨을 누가 우연이라 말할까
足見無疑猜	어떤 의심도 없는 진실이라네
情親卽相感	정이 깊으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법
故曰通三才	그러니 사람을 천지의 주인이라 하겠지

淸風吹座隅	맑은 바람이 앉은 자리에 불어오고
雀啄庭中苔	뜰에는 반쯤 낀 이끼 속 참새만 오가네
寥寥白晝永	길고 긴 낮은 적막하고 고요하니
携影空徘徊	그림자 따라 일없이 배회 하네
瓦盆汲冷泉	오지그릇에 맑은 샘물 길어다 차 끓이니
竹窓無纖埃	대나무 창 너머 세속의 티끌 모두 사라지네
一啜爽五內	한 모금 마시니 오장이 시원하고
萬竅呼風雷	일만 구멍이 열려 우렛소리 나는 듯.

안렴사(按廉使)는 고려시대 지방 장관의 하나로 도내 주(州)·현(縣)을 순찰하며 수령을 규찰하는 임무를 맡은 벼슬 이름이다.

오내(五內)는 다섯 가지 내장, 곧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삼재(三才)는 우주와 인간 세계의 기본 구성 요소로, 그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하늘, 땅, 사람을 가리킨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깊은 정이 없고서야 어찌 생각이 같을 수 있겠는가. 이색은 그 기쁨을 ‘이 기쁨을 누가 우연이라 말할까 아무런 의심도 없는 진실이라네(雖云偶然爾 足見無疑猜)’라며 김 안렴사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벗이라고 말하고 있다. 찾아오는 이도 없이 고즈넉한 산속 살림에 마당에는 이끼만 늘고 새들이나 오가는 곳. 보내준 차를 끓여 마시며 잊지 않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시 한 수에 담아본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옆에 있는 듯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이가 친구이다.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이고 내 입장에서 헤아려 볼 줄 안다. 차 한 잔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보듬을 줄 안다.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달려와 손을 잡아준다. 서로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며 인생을 함께하는 이가 친구이다.

벼슬을 떠나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삶에 가장 큰 즐거움이란 무엇일까. 소중한 벗이 잊지 않고 보낸 햇차를 우려 차향에 취해 한 모금 마시며 감사의 우의를 가슴 속으로 느껴보는 것이 아닐까. 그 차 속에는 건강, 평안, 신뢰,

기대, 존중, 기원, 미안함, 그리움 등 모든 친구로서의 바람이 함축되어 있다. 맑은 바람이 무릎 사이로 불어오는 한낮, 차 마시기 좋은 고요한 시간 벗을 생각하며 샘물 길어다 차를 끓인다. 이 한 잔의 차야말로 지루함을 씻어내고 오장 육부를 말끔히 씻어내 주어 상쾌하기 그지없다. 맑은 정취 속에 감사의 마음이 묻어난다. 한 모금 마셨을 뿐인데 오장이 시원해지면서 온몸의 일만 구멍이 일제히 열려 소리치는 듯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하다. ‘만규호풍뢰(萬竅呼風雷)’라는 표현은 차를 마시자마자 몸이 상쾌해져서 이목구비와 살갗의 털 구멍 등 모든 감각기관이 다시 살아나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의 해학적인 표현으로, 《장자(莊子)》〈제물론(齊物論)〉의 “바람이 안 불면 모르지만 일단 불기만 하면 일만 개의 구멍이 성내어 소리치기 시작한다(是唯無作 作則萬竅怒號)”라는 말을 전용(轉用)한 것이다.

차는 색, 향기, 맛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벗과心心상응(心心相應)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무런 바람도 없는 최상의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징표이다.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인간끼리의 마음을 담기에 충분하다. 솔직 담백한 마음의 우의를 도담게 하는 정겨운 매개체이다. 교감의 작은 제재이지만 크나큰 사교의 상징이다.

맑은 물을 끓여 알맞은 차의 양을 가늠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우려 알맞게 따라야 차의 참된 맛을 낼 수 있다. 물과 차의 조화가 바르고, 차를 나누는 마음은 따뜻하며, 폭넓은 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치 공자가 말한 좋은 친구의 세 가지 품목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세월 가는 것조차 헛되이 느껴지는 날들 속에서도 나의 살아갈 방도를 일깨워주는 친구. 나에게 새봄의 빛이 되어주는 벗이 있다면, 햇차는 새봄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벗이다. 바르고, 믿음직스럽고,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나의 봄날을 그려본다.

목은 선생과 김 안렴사처럼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벗에게 햇차 한 통 보내고 싶은 봄이다. 마음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따뜻하고 향기로운 햇차 한 모금을 머금어 본다. ☀

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조(萎凋)공정 연구



보건학 박사 (대체의학전공)
서난경 전남지부장

위조에 의해 카페인(cafeine)의 함량 증가

LED광선 조사에 의해 카페인(cafeine)의 함량 크게 증가

일광위조에 의해 catechin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

I. 서론

본 연구는 차의 제조과정 중 위조공정이 차의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보성 보림제다에서 제조공정을 달리한 9종의 차를 제조하여 수분함량, 색도, catechins류, theaflavin류, caffeine, 유리 아미노산, 유리당 등의 주요성분을 분석하고 13기 대학원생과 전남지부 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일광위조, 실내위조, 복합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던 차들이 모두 높은 관능적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잎으로 다양한 위조방법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차 생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조공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수분 증발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세포액의 농도 변화가 발생된다.¹⁾ 세포액의 농도 변화는 각종 효소의 대사 방향을 가수분해 쪽으로 진행시키고 각종 효소-기질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이러한 작용은 차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 방어기작(self defense mechanism)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³⁾

1) Tomlins, K. I., Mashigaidze, A. "Influence of withering, including leaf handling, on the manufacturing and quality of black teas", Food chemistry 60(4), 1997, pp.573-580.

2) 쟁유화, 앞의 책, 2010, p.340.

3) 조정용 외 3명 "발효차 향기(1) - 홍차 및 우롱차의 향기생성 메커니즘", 『식품과학과 산업』 40(3), 2007, pp.59-64.

차잎의 수분감소 스트레스는 채엽 하면서 바로 시작되는데 수분함량이 75~83%인 차잎은 위조공정을 거치면서 68~70%까지 감소된다. 수분의 증발은 대부분 차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일어나고 일부는 표피의 각질층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수분 증발로 인해 차잎의 체적이 감소 되고 탄력을 잃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특히 세포 내 삼투압 증가를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⁴⁾ 이 과정에서 세포막에 의해 분리되어 있던 효소와 기질이 서로 반응하면서 일련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줄기와 잎맥 속의 물질들이 자유수를 통해 잎면 조직으로 이송되어 수분이 증발되는 주수(走水)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⁵⁾ 이 밖에도 수분감소 스트레스에 의해 차잎에 존재하는 세포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작용과 가수분해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햇빛에 의한 스트레스는 주로 적외선(780 nm)에 의한 열작용과 자외선 중 UV-B (280~315 nm)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시광선 중 일부 파장대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⁶⁾ 적외선은 식물에 존재하는 다양한 페놀화합물의 유리화를 촉진 시킨다.⁷⁾

햇빛은 차의 향기를 향상시키고 휘발성 향기 화합물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benzyl cyanide과 indole 성분은 일광위조 시 크게 증가하며 terpenoid 증가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앞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위조공정은 발효차(백차, 청차, 홍차)의 제조과정 중 맨 처음에 진행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남이 확인되었다.

실내위조 과정에서는 주로 수분감소에 의한 스트레스가 일어나며 일광위조 과정에서는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한 스트레스와 수분감소 스트레스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II. 결과 및 고찰



Fig 1. Preparing of teas for this study

- 1) 100°C, 15분
- 2) 35°C, 온풍건조, 18h
- 3) spray를 통해 수분을 75%로 유지
- 4) 30°C, 온돌건조, 24h
- 5) 청색광(430nm) 적색광(660nm) 처리

4) Sanderson G. W. "The theory of withering in tea manufacture", Chemical society of ceylon Tea Quart 35(1), 1964, pp.147-163.

5) 마지윤, 「국내 차잎을 이용한 증발효차 가공의 최적화 및 품질평가」,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2014, pp.15-17.

6) 박필제, 「조명과 실내장식」, 조형사, 2015, pp.82-83.

7) 박지희 외 4명 "왕겨 추출물의 항산화능에 대한 원적외선 처리의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지』 34(1), 2005, pp.131-134.

8) Takeo, "Effect of the withering process on volatile compound formation during black tea manufacture", J. Sci. Food Agric. 35(1), 1984, pp.84-87.

1. 위조방법에 따라 변화된 카페인(cafeine) 함량

카페인(cafeine)은 purin염기의 alkaloid 일종으로 융점이 238℃인 백색 침상 형태의 물질이다. 상쾌한 쓴맛을 내며 연구보고에 의하면 위조 과정 중 그 함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⁹⁾

9종류 차에 대하여 caffeine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T6에서 12.28mg/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T5에서 14.51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6을 제외하면, T0에 비해 위조를 시킨 나머지 차(T1~T8)에서 caffeine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위조에 의해 caffeine의 함량 증가 한다는 기존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 caffeine 함량은 일광위조의 경우 13.52mg/g(T1)과 13.76mg/g(T3), 실내위조의 경우 13.67mg/g(T4), 12.28mg/g(T6)로 나타나 실내위조보다는 일광위조 시 caffeine 함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T5가 높은 caffeine(14.51mg/g)을 함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LED광선 조사에 의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ea	caffeine(mg/g dr. wt. eq.)
T0	13.29±0.21ab
T1	13.52±0.21a
T2	13.77±0.34ab
T3	13.76±0.47ab
T4	13.67±0.36ab
T5	14.51±0.53C
T6	12.28±0.48ab
T7	13.79±0.7ab
T8	14.05±0.43b

<Table 1> Caffeine contents in tea prepared with different withering processes

2. 위조방법에 따라 변화된 카테킨(Catechins) 함량

카테킨(Catechin)류는 차에 함유된 polyphenol 성분으로 catechin(C), epicatechin(EC), epigallocatechin(EGC), epicatechingallate(ECG), epigallocatechingallate(EGCG) 등이 있다. catechin류는 전체 가용성 성분의 절반을 차지하며 차의 색·향·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균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¹⁰⁾

위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9종류의 완성된 차에 대하여 C, EC, EGC, ECG, EGCG 등 5종의 catechin을 분석한 결과 <Table 2>과 같이 총 catechin 함량은 T1이 104.15mg/g로 가장 높았고 T8이 43.52mg/g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1의 catechin 함량은 104.15 mg/g으로 T0의 catechin 함량(95.89mg/g)과 큰 차이를 보여 일광위조에 의해 catechin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2의 catechin 함량(99.89mg/g)은 T1, (104.15mg/g)보다 낮았으며 T0, (95.89 mg/g)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위조공정에서의 catechin 증가는 수분감소에 의한 스트레스와 햇빛에 의한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할 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류영숙, 「오롱차 제조법을 응용한 홍차의花香강화 가공방법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15, pp.31-32.

10) 최옥자·최경희, 「발효정도에 따른 국내산 아생차(녹차, 반발효차, 홍차)의 이화학적 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2(3), 2003, pp.356-362.

또한, T5, (103.47mg/g)는 T4, (78.37mg/g)보다 catechin 생성량이 크게 높아졌고 T1, (104.15mg/g)와 비슷한 정도로 catechin이 생성돼 실내위조 공정에서도 LED광선을 이용하여 일광위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Tea	catechin contents(mg/g dr. wt. eq.)					
	EGC	C	EC	EGCG	ECG	total
T0	27.26±0.33 ^d	1.77±0.34 ^{ab}	6.74±0.23 ^b	46.21±0.94 ^d	9.33±8.06 ^{abc}	95.89±1.34 ^{de}
T1	26.36±0.52 ^{cd}	1.72±0.34 ^{ab}	6.77±0.14 ^b	52.72±0.71 ^{fg}	16.58±0.27 ^c	104.15±0.63 ^e
T2	25.16±0.83 ^{cd}	2.04±0.1b ^c	6.42±0.43 ^b	50.5±0.95 ^{ef}	15.77±0.23 ^{bc}	99.89±2.38 ^{de}
T3	7.9±1.32 ^a	2.45±0.44 ^c	3.17±0.42 ^a	29.88±5.18 ^b	11.09±1.0 ^{abc}	54.49±8.46 ^b
T4	18.58±1.14 ^b	1.47±0.09 ^a	3.27±2.84 ^a	41.71±1.06 ^a	13.34±0.3 ^{abc}	78.37±4.89 ^c
T5	27.24±1.73 ^d	1.79±0.09 ^{ab}	6.94±0.23 ^b	56.22±0.92 ^g	11.27±9.4 ^{abc}	103.47±7.87 ^e
T6	7.34±0.27 ^a	1.63±0.24 ^{ab}	2.61±0.03 ^a	26.21±1.17 ^{ab}	9.8±0.17 ^{ab}	47.59±1.48 ^{ab}
T7	24.33±0.84 ^c	1.74±0.11 ^{ab}	6.01±0.21 ^b	47.71±1.21 ^{de}	14.13±0.87 ^{abc}	93.9±1.75 ^d
T8	6.08±2.76 ^a	1.59±0.27 ^{ab}	2.38±0.28 ^a	24.45±2.75 ^a	9.02±0.24 ^a	43.52±5.83 ^a

<Table 2> Catechin contents in tea prepared with different withering processes

III. 결론

위조공정은 차의 제조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정으로 발효차는 물론 녹차의 품질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위조공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성분변화는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기방어 기작(self defense mechanism)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인간은 이러한 현상을 차를 제조하는 기술에 중요하게 응용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발효차 제조에 있어 위조공정은 표준화된 공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광위조, 실내위조, 복합위조 등 위조 방법을 달리해 총 9종의 차를 제조하고 이들 완성된 차들에 대하여 수분함량, 색도, catechins류, theaflavin류, caffeine, 유리아미노산, 환원당 등의 주요성분을 분석하고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서론의 연구 방향에서 제시하였던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위조공정을 거친 차와 위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차는 모든 성분과 이화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여 위조

공정은 차의 맛과 향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차이를 보여 차의 제조공정이 대단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실내위조, 일광위조, 복합위조 공정에 따른 차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서 catechine 함량은 일광위조 > 복합위조 > 실내위조, theaflavine 함량은 실내위조 > 복합위조 > 실외위조 순이었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실내위조 > 복합위조 ≒ 실외위조 순이었다. 유리당 함량은 복합위조 ≥ 일광위조 > 실내위조의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차의 쓰고 떫은맛에 관여하는 catechin과 차의 상쾌한 쓴맛에 관여하는 caffeine 성분은 일광위조 공정에 의해 크게 증가하며 차의 감칠맛과 단맛에 관여하는 유리아미노산은 실내위조 공정에 의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차의 단맛에 관여하는 유리당 함량의 경우 복합위조와 일광위조 공정에 제조된 차가 실내위조 공정에 의해 제조된 차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위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분변화가 일어나며 따라서 차의 품질과 이화학적 특성에 위조방법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위조과정 중에 찻잎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는 수분감소와 햇빛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광위조 공정에서 수분감소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제조한 차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광위조와 실내위조 공정만을 거친 차 및 위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차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광위조 공정에서 수분감소 스트레스를 줄여서 제조한 차는 일광위조 또는 실내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한 차와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오히려 위조공정을 거치지 않은 차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 위조공정에서 일어나는 수분감소 스트레스가 차의 이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실내위조와 흐린 날에도 일광위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실내위조 공정 중 LED광선을 조사하여 차를 제조하고 이를 일광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차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내위조 공정 중 LED광선을 조사하여 제조한 차의 이화학적 특성이 일광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차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여 실내위조 공정에서도 LED광선을 이용하여 일광위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LED 파장의 제다 산업화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광위조와 실내위조 모두 의미가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위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차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유의적 수준 내이지만 복합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차가 일광 또는 실내위조 공정만으로 제조된 차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통해 일광위조와 실내위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복합위조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위조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여섯째, 본 연구 과정에서 일광위조, 실내위조, 복합위조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던 차들이 모두 높은 관능적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차의 제조과정 중 위조방법이 차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차산업으로 다양한 위조방법을 이용해 고품질의 발효차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한 국내 차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리라 여긴다. 더불어 탄방을 통한 녹차의 맛과 향기를 변화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제다 공정 중 위조공정의 표준화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대상포진, 통증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치료해야!



가천대길병원 피부과
김희주 교수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된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한다. <편집자 주>

우리 몸속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하는 바이러스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체 내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한다. 따라서 수두를 앓은 적이 있다면 대상포진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주요 원인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 나이가 원인이 되지만 스트레스, 피곤, 컨디션 저하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2만 명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50세 이상 발생 위험이 크고,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대상포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흔히 통증이 동반되며, 드물게는 출산보다 심한 고통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대상포진이 신경통을 유발하지 않지만, 한번 신경통이 시작되면 매우 심해질 수 있다. 보통 고통의 환자가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포진 후에도 신경통이 이어질 수 있다.

대상포진은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사라졌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피부 포진이 없어진 후에도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 병변이 없

어져도 이러한 통증은 2~3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이는 대상포진의 가장 흔하면서도 힘든 합병증이다. 따라서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병변 후 통증은 50세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6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 그 외 급성기 통증이 심했거나, 피부발진이 심했던 경우, 눈의 침범이 있었다라도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데 50% 정도는 3개월 이내, 70% 정도는 1년 이내에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 치료 후 바이러스가 잠복한 뒤 발생하기 때문에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백신의 경우 완벽히 발병을 차단할 순 없지만, 증상이나 신경통의 발생빈도와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대상포진은 전조 증상이 다른 질환으로 오해하기 쉬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대상포진은 피부에 특징적인 병변인 물집이 먼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전조 증상 등이 있다. 전조 증상은 발병 평균 4~5일 전부터 피부에 통증, 가려움, 감각 저하 등 감각 이상으로 나타난다. 통증은 따가움, 깊은 통증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 두통, 발열 등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예도 있다. 이 같은 증상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상포진이 가슴 부위에 생길 때 심장질환이나 소화기질환으로 오인하거나, 관절 부위에 생기는 경우 관절통 관련 질환으로 오해하다

가 피부발진이 생긴 뒤에야 대상포진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흔하다.

대상포진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은 붉은 반점, 물집, 고름물집이 생긴 뒤 1~2주일이 지나면 딱지로 변하고 떨어진다. 발병 초기 붉은 반점이나 물집은 3~7일 동안 계속될 수 있다. 딱지가 생기는 기간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눈 주변이나 코, 이마 근처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이러스의 안구 신경 침범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안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어 추가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귀 주변이나 뺨 근처에 발생하였을 때 심한 귀통증, 안면마비, 이명, 난청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진단은 통증과 피부병변을 통해 진단한다. 필요한 경우 물집을 긁어 피부 세포 변화를 검사하기도 한다. 혈액검사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는 비슷한 검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포진 진단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대상포진 치료는 바이러스 억제와 통증 완화가 주목적이다.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하며, 입원한 환자는 주사로 치료하기도 한다. 바르는 항바이러스 연고는 효과가 없다. 통증이 발생한 후 피부 발진이 생기기 전, 또는 피부 병변 발생 초기 투여하는 경우 통증 기간을 줄이고 포진 후 신경통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다. 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데 진통제, 신경통 치료제 등을 사용한다. ❶

차의 숙성 정도에 따른 6대 다류 소개

사범반에 차의 분류와 음용법 강의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정연상



2022년 11월에 지부장님과 66기 사범반이 ‘차의 분류와 음용법’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중국 명차 6대 다류는 중국 명차로 하고 가루차까지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사범반 회원들은 다들 멀리서 오시니 차 한 종류라도 더 맛보고 알게 하고 싶었다.

차의 6대 다류는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이다. 찻잎에는 여러 가지의 성분이 있는데, 차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폴리페놀이 산화효소를 만나 색, 향, 맛이 변하는 발효과정을 거친다. 차의 숙성 정도에 따라 6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녹차(綠茶)는 발효(숙성)시키지 않은 찻잎을 사용해서 만든 차로 생엽에 높은 열을 가하거나 증기로 찌는 살청으로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동을 멈춰 녹색을 유지하게 된다. 백차(白茶)는 중국 특유의 차로 다른 차들에 비해 과정이 간단하여 햇빛이나 열풍에 수분을 천천히 건조해 만든다. 어린 찻잎에 흰털이 가득 피어있어 백차라고 한다. 청차(靑茶)는 녹차와 홍차의 조화로움이 있는 차

로 중국에서는 오롱차라 한다. 부드러운 꽃향기와 꿀, 과일 향을 느낄 수 있다. 황차(黃茶)는 열처리가 끝난 찻잎을 종이나 천으로 싸 습도와 온도에 의해 약하게 발효(숙성)시켜 만들어 녹차의 쓰고 떼은맛이 줄어들어 순한 맛이 난다. 홍차(紅茶)는 찻잎을 완전히 발효(숙성)시킨 후 건조한 것으로 찻잎이 발효되면서 붉은빛을 띠게 되는데 찻잎의 효소를 그대로 남겨두고 갈변현상을 유도하여 효소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흑차(黑茶)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는 후발효차로 찻잎에 물을 뿌리고 두껍게 쌓아두어 잎 자체의 온도, 습도를 높여서 가공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며 유익한 미생물이 생기도록 하여 깊은 맛이 난다. ☯



행복이라는 감정을 시각화한다면 송년회 같지 않을까요?

내리 사랑은 물 흐르듯 막힘이 없구나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최유리



알람보다 먼저 울리는 서울제2지부 단톡방엔 박광옥 부회장님의 좋은 글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날도 새로운 글을 확인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단톡방을 열어보았고 ‘송년회’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협회 근처에 있는 거래처 방문 일정을 송년회와 같은 날로 정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집을 나서 거래처 일정을 마치고 뒤늦게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정성스럽고 맛깔스러운 음식들 사이로 여기저기에서 반가운 인사를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서울제2지부 회원분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초면이거나 지면으로 또는 사진으로 뵈었던 분들이 실제로 앞에 계시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송년회가 시작되어 이사님들의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최소연 이사님과 박광옥 부회장님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어색했던 동공이 풀리면서 분위기에 녹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느린 속도의 화법에는 편안함이 느껴졌고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제주 여행을

다녀오셨고 제주도 돌 박물관에서 보신 수급불류월(水急不流月)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급히 흐른다 한들 물에 비치는 달에 그림자는 흐르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강정자 부회장님은 제 눈을 맞추며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님들에게 배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배우셨다고요. 참석만 해도 배울 게 있고 성장한다는 의미 있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차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님들이 있고 잘 이어받아 후배들에게 고스란히 전해 주고 싶습니다. 이후로 이사장님께서 준비하신 송년회 선물과 서울1지부 최정희 이사님께서 따님 혼사 답례품으로 준비해 주신 직접 만드신 머그잔을 받고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내리사랑은 물 흐르듯 막힘이 없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시각화한다면 오늘처럼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시간이 아닐까합니다.

행복한 송년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지난 3년 함께 도움을 준 회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지부장 이임사

글_전 서울제1지부 지부장 이석예

서울제1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을 하고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협회의 이사로 되돌아갑니다. 명예롭게 지부장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신 최소연 이사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이 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봄 전통과 명예의 서울제1지부의 지부장으로 취임하며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양어깨가 무척이나 무겁게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왕 맡았으니 화끈하게 해보자며 마음 다 잡고 다부진 마음으로 야심 차게 시작을 알렸으나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라는 크나큰 벽과 부딪쳐 갈 곳을 잃은 배처럼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유행하다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제가 재임하는 3년 동안 끈질기게 함께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불안함에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던 시간도 점점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은 이어지고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부의 교육을 절반은 지부장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교

육을 위한 정보들을 모아 교육 자료로 만들고 연습하며 지도사범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무려 3년을 보내고 나니 경험이 누적되어 이제는 어디서든 차를 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많이 미흡하였지만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임무를 마치게 되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즐기면서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밀려옵니다.

이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신임지부장과 더불어 차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과 함께 새로운 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 시작되는 시간 안에서 평범함이 주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오늘도 이쁘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서울제1지부 사범 선생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㉞

서울제1지부를 즐겁고 멋지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지부장 취임사

글_서울제1지부 지부장 이기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 지부장을 맡게 된 이기분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마스크를 어디에서든 모두 벗을 수 있길 소망하며 지부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저를 믿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역대 지부장님들과 이사님들의 격려와 이석예 지부장님의 사랑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이 올바른 차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사범 선생님들과 후배님들 협조로 서울제1지부를 즐겁고 행복하게 또한 멋지게 3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제1지부의 지부장으로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㉞

다문화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한국 차문화 체험



인천지부 대학생 및 회원들 참여

글_인천지부 지부장 조영아

인천지부는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함께 다문화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차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 여성 2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의 전통 의상과 생활 속 예절, 다례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천지부 주순복 대학원 15기 회장과 인천지부 대학생들이 봉사해 주었다. 한국 차문화 체험에 참석한 이주 여성들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 ㉞

색다른 도전

아름다운 추억과 배움의 길이었다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이은경



2021년 초 서울제1지부 지부장인 언니의 권유로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언니가 하는 차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막상 내가 시작을 해보니 대단함을 넘어 모든 선생님께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생기는 2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지도사범 교육과 축소된 행사들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지나고 생겼다가 지나고 하였습니다. 직장 and 집안 사정으로 지도사범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공연히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했는데 끝은 봐야지 않나 하는 의지로 꾸준히 2년을 보내고 인성차예절지도사범 2급 심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와 인성예절지도사 2급도 신청하고 동영상으로 들으며 메모했던 것들을 들여다보며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느새 굳어진 뇌는 쉽사리 외워지지 않고 자꾸 터널이 되어 버려 필기시험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불안해하는 나를 보며 언

니와 주변의 사범 선생님들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필기 시험을 달달 떨면서 보았습니다. 불합격인 줄 알았는데 합격이 되어 실기심의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인천무형문화재 제11호인 규방다례는 한번 연습하면 거의 1시간이 걸리도록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순서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다례 연습을 하고 다시 규방다례 연습을 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상에 차와 다식과 다식 젓가락들을 올리고 내리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배 사범님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으며 안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연습하였고 드디어 심의 날이 되었습니다. 1조로 맨 처음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홍보가 퍼지지를 않는 것 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장님께 딱 걸려
“이은경은 홍보 퍼기 100번 연습하고
동영상 제출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심의를 모두 마치니
홀가분했습니다.”

선비다례를 보았습니다. 손이 달달달 떨려서 머릿속이 하얗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규방다례는 최소연 이사장님 앞이어서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되도록 이사장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규방다례 행다에만 집중을 하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했는데 홍보가 퍼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장님께 딱 걸려 “이은경은 홍보 퍼기 100번 연습하고 동영상 제출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심의를 모두 마치니 홀가분했습니다. 집에 와서 홍보 접기, 퍼기를 몇 날 며칠을 연습하고 언니한테 검

사를 맡았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며 언니도 한마디 합니다. 아직은 매우 어설피고 보는 사람이 불안하니 집에서 더 연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심의 도전기는 마무리가 되어 겨울 연수에서 2급 자격증 3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많이 힘들어 그만두려고 했던 나를 다독이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서울제1지부 선생님들께 감사 را 드립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니 뿌듯함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좋은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도 쌓고,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햇살 속에서 튀어나온 그녀

볼수록 매력이 있는 며느리

글_전남지부 전문사범 선수원 / 수필 작가



내 또래보다는 훨씬 늦은 나이에 처음 치르는 지식의 혼인날이다. 그동안 남들 혼사를 부러움 가득 실어 바라봐야 했고, 애먼글면하기도 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는 날이다. 하늘도 축복해 주시는지 세상은 온통 밝고 감미롭기만 하다. 사월의 탐스러운 햇살은 은비늘을 뿌린 듯 화사하게 온 누리에 퍼져 내리고, 훈훈한 바람결도 살랑살랑 피부에 와 감긴다. 한복 자락을 훈풍에 날리며 식당으로 향하는데 저절로 미소가 번지며 의기마져 양양해진다. 오늘은 분명 길일이 맞는 것 같다.

기대가 큰 만큼 긴장감에 싸인 채 경황없이 예식이 끝났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객들을 배웅하느라 나는 넓은 주차장을 비집고 다녀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새벽잠을 물리치고 먼 길을 달려와 준 하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큰 힘이 되어인지 혼주로서 이리저리 바빠 뛰어다니며 인사를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버선은 발을 옥죄어 오고, 작은 키를 심하게 키운 굽 높은 한복 신발은 나의 기를 빼앗고 있다. 간신히 하객들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한순간에 긴장이 풀린다. 이때를

노리기나 한 것처럼 긴장 속에 웅크리고 있던 코로나19의 후유증인, 극심한 무기력증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려 한 걸음도 움직이기가 어렵다. 몸이 무너져 내린다. 그대로 대지의 아늑한 공기에 안겨 누워버리고 싶다. 겨우 문을 열고 로비에 들어서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인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만다. 좀 전까지 내 곁에서 복잡복잡하던 친인척, 친구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고, 더욱이 여기는 생소하고 낯선 곳이다. 몸을 부러놓고 앉아 있으려니 허허벌판에 혼자 떨어져 있는 막막함과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허전함이 몰려온다. 게다가 예식 내내 연신 싱글벙글하던 아들 녀석이 떠올라 생뚱맞게도 서운한 감정이 툭 하니 올라온다. 장가보내려 안달했던 그간이 (그간의) 시간이 무색하기만 하다.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다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나마 유일한 의지 처인 남편도, 아들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된 며느리도 보이지 않는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특히 버선과 한복 신발을 빨리 벗어내야 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기운을 붙들려고 안

간힘을 써보지만, 손끝 까딱할 힘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때였다. 유리문 밖 세상을 멍하게 바라보는 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출입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가느다란 몸매에 흰 저고리, 분홍치마를 입은 오늘의 신부다. 한복 차림에 핸드백을 사선으로 아무지게 메고서 씩씩한 여전사처럼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사실 식이 진행되는 내내 신부다운 수줍음 속에서도 당찬 기운을 보여줘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끌어내는 데 일조를 한 그녀는 암따기만한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짓궂은 사회자의 질문에 신랑보다 더 튀는 큰소리로 대답해 하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던 그녀다. 또한 신랑·신부가 함께 부른 축가는 신랑인 아들의 달달하기 그지없는 목소리와 신부의 시원하게 튀는 목소리는 의외의 화음을 이루어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런 그녀이기에 구세주를 만난 듯, 없던 기운이 딱하니 살아나는 듯하다.

“어머니, 옷 갈아입으셔야지요” 역시 씩씩하다. “제가 옷을 가지고 올게요. 아버님께 차 키가 있겠네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척척이다.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유리문 밖으로 사라진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내 동공이 활짝 열렸다. 한복차림에 여전히 핸드백을 사선으로 메고, 커다란 검은색 옷 보따리 두 개를 양쪽 어깨에 둘러메고서 힘차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조금 전 화려한 결혼식을 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맞나 싶다. 아무렇지도 않게 옷 보따리를 둘러맨 모습으로 나에게 탈의실로

가자며 앞장을 선다. 기력이 빠진 채로 겨우 따라 걸어가는 나는 그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가냘픈 몸매에 대한 우려는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내 앞에는 당당하고 듬직하기조차 한 우리 집 만며느리로 우뚝 서 있는 것이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나는 저절로 순한 양이 되어 그녀의 손에 나를 맡기고 만다. 올림머리를 풀어 머리를 정리해 준 다음, 허물 벗듯이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옷가지들을 개어 두 보따리에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손길도 빠르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도와주고, 구두를 신는 것까지 확인하고 주변을 말끔히 정리한다. 그리고 가자 한다. 또 다시 가냘프기만 한 양쪽 어깨에 몸집이 더 커진 보따리 두 개를 둘러메고 앞장선다.

나는 한결 편안해진 채로, 든든한 우리 집 만며느리와 함께 할 우리의 미래로 들어서고 있다.

커다란 옷 보따리를 양쪽 어깨에 메고서 시어머니인 나를 인도하는 그녀의 뒤로 남편이 했던 축사의 한 대목도 뒤따르고 있다.

“처음 화정이를 우리에게 인사시켰을 때 애교 있는 경상도 대구 말씨가 얼마나 신선하고 예뻐는지 우린 그때 바로 인연을 예감했었다. 자기 의사가 분명하고 똑똑한 기운이 느껴져 마치 아들처럼 든든해 보이기도 했다. 전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냘픈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화정이를 우리 부부는 “볼매 화정이”라 말한다. 볼수록 매력 있다는 말이다. 우리 며느리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남편의 사랑이 듬뿍 담긴 힘 있는 축사는, 기운을 뿜어내며 걸어가는 그녀에게 메아리 되어 퍼지고 있었다. ㉠



찾자리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찾자리에
살아가는 이야기
안부를 묻는 이야기
내일을 여는 이야기
소망을 담은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찾자리에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손님에게 전해질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차를 함께 할 친구의 마음이
가꾸어 갈 차문화의 마음이 담겨 있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사랑방 | 경남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가나다 순)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전남지부 · 전북지부 · 충북지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사진 중 인원 초과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경 남 지 부

2급 사범과정을 수료하며

장무상망(長母相忘)하고픈 다우님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세한도(歲寒圖) 글귀로 장무상망(長母相忘)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서로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2천 년 전 한 나라에서 출토된 와당 기와에서 발견된 글귀라고 합니다.

추사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생각해 준 제자 이상적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한 동기생들과 나누고픈 글귀입니다.

평소 미술과 공예에 관심을 가지고 후암 스승님을 만나 옷칠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국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명장(407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심사위원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입니다.

제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해 주시는 경남 지부장님과의 인연으로 (사)한국차문화협회를 알게 되어 63기로 입문하여 2023년 2월 수료하였습니다. 4학기 동안 여러 분야의 차문화를 배우고 실습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차문화의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걱정도 많이 하고 규방다례 이수자님께 혼쫓도 났습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 그간 공부한 다

우님들과 함께 더 배우고 장무상망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협회 이사장님과 이수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부장님, 교육부장님, 선배 사범님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범반 선생님들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_63기 수료사범 안미현



지부장 황미경

지역의 품격을 높인 선비다례 시연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 성공적으로 완료

함안군은 지난 17일 함안체육관에서 10개 읍면 주민자치 위원,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열린 박람회는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사업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더 나은 공동체 조성을 다짐하기 위해 '내가 만드는 주민자치, 다 함께 행복한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읍·면별 주민자치 활동 홍보부스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각 읍·면에서 쌓아온 기량과 실력을 뽐내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등 주민자치 화합의 장이 됐다.

나는 경남지부 함안지회장으로 군북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다례반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에 군북면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비다례를 선보였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인 김도현이 선비다례를 시연하였는데, 많은 박수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도현은 초등 4학년부터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틈틈이 다례를 이어오는 기특한 청년이다.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차문화를 이어 온 보람도 느꼈다. 코로나 등으로 인원이 줄었지만, 아직 다례반은 운영하고 있어 다행으로 여긴다. 늘 챙겨주는 경남지부장님과 지회장님들의 활동을 보며 나도 즐거운 맘으로 기꺼이 봉사하려 한다.

글_전문사범 이영애



교 토 지 부

한일문화교실 개최

우라센케와 생활차 행다 비교 분석하는 시간 가져



지부장 조화미

2023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토지부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한국차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일 간 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 말 민단 시가현본부 한국문화강좌의 일환으로 「한일문화교실」이 열렸다.

일본 우라센케 다도의 행다와 한국차문화협회 생활차 행다를 선보였다. 우라센케 다도와 한국차문화협회의 생활차 행다를 통해 두 나라의 차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라센케는 일기일회(一期一会)가 특징으로 즉, 일생에 단 한번뿐인 만남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의 찻자리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활차 행다는 손님을 정중히 대접하는 것을 것으로 규방에서

아녀자가 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법의 공동점과 차의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상호이해를 위한 이와 같은 강좌를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경북제1지부

사범 연구반을 통해 차문화의 참모습을 배우다

차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함께 하다



지부장 박경숙

차문화 입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주 하루씩 출석해 온 날들이 어느덧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고 있다.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고맙고, 감사하다. 차 바로 이거다.

차의 인연은 소중한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뜨겁게 달구어준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껴준다. 하여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

겨울방학과 함께 명절이라 몇 주를 쉬었다.

그리고 사범 연구반에 출석했다.

모두 반가움과 궁금했던 소식을 가지고 언제나처럼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차를 나누며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케이크에 불도 켜다.

가슴이 뭉클해 왔다. 소중한 인연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차를 모르는 모든 분께 차와 인연 맺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규방다례 학술 세미나 대구 범어 도서관에서 발표

박광옥, 강정자, 박경숙 협회 임원 참석

지난 2022년 12월 8일 협회 박광옥 부회장이 대구에 내려왔다.

수성범어도서관에서 '한국 차문화의 원형 모색'이라는 주제로 규방다례에 관해서 학술발표를 했다. 준비를 잘해서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사찰다례에 대한 강의를 어느 분이 했다.

모든 강의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왔다.

박광옥 부회장은 규방다례의 정립부터 현재까지 한국차문화협회가 추구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차문화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관객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소연 이사장님이 한국 차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며, 한국차문화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위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했다.

긴 시간 동안 학술발표와 토론을 마친 박광옥 부회장의 당당한 모습과 한국차문화협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가진 하루였다.



서울 제1지부

차를 통한 소통의 시간

나눔은 배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크다



지부장 이기분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12월 초 어느 날, 직장인들을 위한 다과 시간 강의를 요청받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내가 체험한 차의 세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런 저런 준비를 하며 가슴이 설렘. 차에 대한 지식 보다는 내가 경험한 느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소통의 매개체로 차와 다식이 있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다. 직장에서의 일과를 끝내고 서울 전 지역에서 20여 분이 모여 첫인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어색함을 떨치며 친밀감을 조성하였다.

차에 대한 간단한 상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차를

우려서 스스로 대접하는 생활다례법으로 행다 체험을 시작했다. 모두 따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나 또한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눔은 배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이러한 현장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감이 밀려온다. 차문화의 보편적 보급에 앞서고 늘 함께한다는 생각들이 나를 차인으로 머물게 하는 원동력인 듯하다. 차인으로 함께하는 동기와 선·후배님들이 옆에 있어서 항상 든든하다.

글 전문사범 김미경



서울제1지부 지부장 이취임식 및 종강식

전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 신임 지부장 축하

2022년 중 가장 큰 지부 행사는 12월 10일에 진행된 종강식이었다.

이날은 지부장 이·취임식이 종강식과 함께 개최되었는데, 서울제1지부 초대 지부장님이신 윤여홍 고문님, 차영민 부회장님, 김옥희 전 지부장님, 최정희 이사님 등 역대 지부장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이날 이기분 지부장님이 취임하고, 3년 동안 지부를 이끌었던 이석예 지부장님은 이임했다.

신임 이기분 지부장님은 취임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다며 서울제1지부의 모든 사범께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신임 이기분 지부장님은 차영민 부회장님께서 지부장으로 역임했을 때 47기 지도사범으로 시작하여, 김옥희 지부장님의 임기 기간에 대학원을 다니며 총무직을 맡았고, 12기로 대학원을 졸업 후, 최정희 지부장님의 임기 기간을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총무직을 역임했다.

이 같은 서울제1지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신임 이기분 지부장님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며, 2023년 새롭게 시작될 서울제1지부의 행보가 벌써 설레고 기대된다.

이석예 지부장님께서서는 부득이하게 당일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 모두가 속상해하고 아쉬워했고, 영상을 통해 짧은 이임사를 전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이석예 지부장님께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 코로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변동성과 불안감을 가져다주었지만, 비대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여 돌과구를 마련했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흠어졌던 사범들과의 화합에 최우선을 다하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제1지부 사범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활동해온 것이 정말 뿌듯하다.

앞으로도 서울제1지부의 새로운 시작을 또 한 번 응원한다.

글_전문사범 송영아



서울제2지부

서로 보듬고 내실을 다진 신년하례식

봉사가 곧 배움이란 것을 실천하다



지부장 박광옥

지난 1월 12일 가든호텔에서 2023년 한국차문화협회 신년하례식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 많은 행사가 열리지 못했고, 오랫동안 모두가 함께 모일 기회들이 없었기에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만남이 기대되고 설렜다. 임원분들과 지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오랜만에 만나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로 테이블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사장님께서 계묘년, 서로를 보듬어 가며 우애를 돈독히 하는 내실을 다져가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는 인사말로 신년하례식을 시작했다. 새해를 맞아 임원분들과 사범 선생님들 모두 이사장님께 큰절을 올렸고, 선생님들은 마주 보며 뽀는 절을 하였는데 전통에 따라 서

로 간에 예로서 절을 하며 새해 인사를 올리는 모습이 의미 있고 뜻깊었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2지부가 이사장님께 올리는 진다례 봉사를 맡았다. 계단을 오르다 행여 한복을 밟지는 않을까, 걸음 속도는 적당한지, 다반의 높이는 적절한지 등 계속 맞춰 보고 연습했다. ‘봉사가 곧 배움입니다.’ 봉사를 통해 세세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 몸에 배도록 익혀 나가는 것 같았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식과 차 그리고 행사 준비로 수고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한국차문화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회원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글_지도사범 박지윤



서울제 2지부 송년회 찾자리 개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의 의미 되새겨

지난 2022년 12월 14일 성탄절 이브, 서울제2지부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과 소망을 기원하며, 서울 제2지부 모든 회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송년회 찾자리를 가졌다.

부회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홍차 찾자리 세팅 분위기, 홍차, 백차, 알가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류를 시음하였으며, 은은(隱隱)한 차향(茶香)과 맛으로 인해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평안한 휴식의 시간이었다.

회원분들이 준비한 다과류들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소박한 마음의 정겨운 찾자리 모임이었다. 우리 지부에 기쁨과 행사를 함께하시는 손현숙 선생님과 조상철 선생님의 생신이 가까워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예쁜 떡케이크를 놓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한국차문화협회는 2002년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재 규방다례(閨房茶禮)는 다경(茶經), 동다송(東茶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의 각종 문헌 고증(考證)에 의거 한국의 규방다례를 복원·계승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차(茶)문화와 생활 예절을 보급하고 있다는 부회장님의 말씀에 다시금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졌다.

또한 한국의 아름다운 미(美)를 느낄 수 있으며, 전통의상 한복을 실생활에서도 매일 접할 수 있는 한복 열쇠고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쁘고 고급스러운 문양과 색채가 어우러진 전통 한복 콘셉트의 한복 열쇠고리를 마음에 담아 만드는 내내 재미와 흥미에 회원분들의 입가에는 미소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글_전문사범 조상철



아 산 지 부

아산지부 기관장 단체 신년회에 찾자리 마련

한국 차문화의 우수성과 관심에 공헌



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는 아산시장을 비롯하여 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 찾자리를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신년하례식에서는 아산지부 회원들이 다식과 차를 정성껏 우려내어,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아산지부 회원들은 한국차문화협회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아산지부 동계 '예절과 품성 프로그램 교육' 실시

학생들은 우리 차문화에 대해 관심 가져

아산지부는 향교에서 동계 '예절과 품성 프로그램 교육'을 개최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이번 교육생들은 비교적 잘 따라 해서 큰 보람을 느

꼈다. 특히 여학생들이 차문화에 관해 관심이 높았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녹차 마시는 법, 녹차 우리는 법, 찾자리 예절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예절과 품성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미래의 차인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협회는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김태임 지부장은 "미래의 차인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차를 배우는 학생들이 더 없이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온양향교에서 다도반 종강식 가져

향교 관계자들과 차문화 교육의 필요성 공감

아산지부는 온양향교 전교님과 사무국장을 모시고 다도반 종강식을 했다. 아산지부는 온양향교에서 일반인들에게 차문화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차문화 예절교육을 받게 되어 기뻐했다는 회원들은 종강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태임

지부장은 "역사적인 향교에서 다도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다"라며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다도 교육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시민과 회원들에게 다양한 차예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신당고등학교 학생들 예절 품성 교육 시행

한복 입기, 차 마시기, 예절 교육 등 가져

아산지부는 신당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차문화에 대한 교육을 했다. 복식을 비롯하여 차 우리기, 차 마시기, 인사 예절 등 예절 품성 교육 전반에 대해 교육했다.

학생들은 우리의 한복 입는 법부터 차 마시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차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이 높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었다.

교육을 하는 날은 아산지역에 큰 눈이 내려 통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악조건을 헤치고 학생들을 대하니 보람이 컸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차문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지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 후 학교

전통문화를 꿈꾸는 다우(茶友)

인천지부에서는 방과 후 떡메치기로 인절미를 만들어 차와 함께 즐기는 다례 체험을 했다. 고사리손으로 차를 우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학생들, 추운 날도 녹여줄 것 같은 활기찬 어린 학생들, 잘 우려진 차를 마시며 “아 맛있다”라고 미소 짓는 모습에서 미래의 차인을 보는 것 같았다.



어린 학생들이 기분 좋은 소리로 ‘고맙습니다.’라며 90도로 인사를 하며 가는 아이들을 배웅하면서 차인이 된 것에 보람을 느꼈다.



지부장 조영아

차와 예절을 통한 인성교육

인천 신명여고에서 차수업을 하다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차와 함께하는 예절 교육을 1학년 2학년 전체 학생을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예절교육을 하였다.

때마침 함박눈이 이틀 동안 내려 교통은 좀 불편하였지만,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눈꽃이 만발한 교정을 보면서, 쉬는 시간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셀카에 눈사람 만드는 학생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차를 통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교장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난 화분이 와 있었다.

순간 짜릿하면서 진한 감동이 밀려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차문화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더욱더 열심히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했다.



인천도호부관아 정월대보름 큰잔치

인천지부에서 '따뜻한 차 드세요' 찾자리 마련

지난 2월 5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정월대보름 큰잔치가 열렸다.

인천지부에서는 겨울 체험으로 즐기다 프로그램 중에서 '따뜻한 차(茶)드세요' 행사를 펼쳐 인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인천지부는 회원들은 찾아오는 인천시민들에게 다양한 차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가천문화재단이 주관

했고, 인천지부가 참석한 행사로 공연이 끝난 후에는 복주머니 속에 깜짝 선물 이벤트로 참석한 시민들에게 정월대보름의 큰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인천지부 회원들이 있기에 인천지부의 앞날 또한 밝은 것으로 기대한다.



전 남 지 부

“전남 중등 교원 원숙기 행복한 직무연수” 참여해

차 이야기 호응 높아



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는 지난 12월 8일 여수 히든베어 호텔에서 전남지역 중등 교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원숙기 행복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차 이야기와 찾자리 연출 및 공진단 만들기 체험을 주관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 교원들의 호응에 힘입어 중등에서도 실시했는데 중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세책례로 하는 학교가 있어 차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다.

서난경 지부장의 차 이야기에 따라 삼국시대 자차법을 설명할 때는 떡차 찾자리와 청태전을 끓여내어 이해를 도왔고, 고려시대 점다법 설명에서는 가루차 (말차)의 격불(擊拂)을 현란하게 내어 보

는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 조선시대 포다법 설명에는 감농 녹차를 우려 녹차의 싱그러움을 맛보게 했다.

또한 이날 연수에서는 우리 협회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 8덕목을 접목한 행다법을 소개해 교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공진단 만들기 체험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장년기에 접어든 교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수를 통해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면 일선 학교에서도 다도예절을 실시해 보겠다는 관리자들이 많아 이번 연수의 큰 소득이 되었다.

글_사범교육생 조화영



2022년도 하반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종강식 가져

너와 내가 없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지난 2022년 12월 17일 전남지부는 하반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개별 음식 준비 파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원들 모두가 특기인 음식을 장만해와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로하며 즐겁게 지냈다.

이날 종강식은 2급 필기시험이 끝나고 이루어졌는데 함박눈이 앞이 안 보이게 왔지만, 귀가의 걱정도 잊은 채 종강식 내내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특히 이날 종강식에는 실기시험이 끝나고 이루어져 김영애 순천지부장님을 비롯해 선배들도 참여해 코로나19로 교육생만 참석해 조출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 상반기 종강식과 대조를 이루었다.

김나라 사범교육생(2022년 총무)은 “회원들 모

두가 술선수범을 통해 음식을 준비하고 너와 내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었다며, 2년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서난경 지부장은 종강식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원 모두가 광주 국제차박람회, 강진다향제, 청태전 찾자리, 해남 초의문화제 등에 참여해 전남지부의 위상을 높여준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글_사범교육생 강현식



다식과 함께 손님 대접해요

여수 쌍봉초 5학년 70여 명 대상

전남지부는 지난 11월 21일 전남 여수 쌍봉초등학교 5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다식과 함께 손님 대접해요”라는 주제로 인성교육을 펼쳤다.

5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차생활 속에서 인성 8덕목을 찾아 적용해보고 차의 정신과 문화를 습득하며 손님 맞이 행다법을 익혀 차를 우릴 수 있게 한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다식을 만들고 차를 우려 친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통 다식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맛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병도 교장은(여수 쌍봉초) “지난번 다례교육은 차 행다법



과 인성 8덕목을 접목하여 교육하니 아이들이 훨씬 잘 받아 교육 후 생활 태도가 많이 개선되었기에 후속으로 5학년에 추가 교육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손님 맞이할 때의 예절을 익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번에 걸쳐 다례교육을 지켜본 여수 쌍봉초에서는 새학기에 자체 다도반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학부형회에서도 자체 연수를 잡아 학부모들도 다례교육을 하기로 했다. 글_대학원교육생 이정희

전통문화 체험합니다

남평중, 한복 입기, 절 배우기, 행다법 체험주관

전남지부는 지난 1월 2일 남평중학교에서 전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남녀 한복

입어보기, 전통 절 배우기, 전통 행다법익히기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무료한 시간에 우리의 옛것을 익히게 되어 즐



겁다고 말했다. 한편 남평중학교는 코로나 이전에는 졸업식을 세책례로 진행해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격려를 받은 바 있고 인성교육을 차문화와 접목시켜 일선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 전남지부는 남평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올해부터 차문화 동아리를 결성해 학생들에게 매주 차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부는 재능 기부할 회원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_전문사범 주정숙

지역 특산물 이용한 다식 만들기 체험

전남지부 담양 마운다미원

전남지부 마운다미원(원장: 김경자)은 지난 1월 10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곡성군 오곡면에서 지역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오색 과일 쌀강정 만들기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청 마을 효와 장미 고장의 특성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한복을 입고 효를 바탕으로 한 행다법을 익혀서 차를 우리는 체험을 하고 6대 다류와 곡



성 특산품을 이용한 다식 만들기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곡성 지역 내에서 차 카페 운영을 희망하는 지역민들이 참여해 두 번에 걸쳐 교육받아 차문화의 산업화에 일조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_전문사범 김경자

오색강정은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1. 쌀 조청, 오일, 물, 천연색소를 넣고 끓여준다.
2. 판 위에 원하는 과일과 장미를 펼쳐 놓는다.
- 3.1에 견과류와 쌀 튀밥을 섞은 뒤 판에 부어준다.
- 4.3을 밀대로 밀어 평평하게 한 후 칼로 잘라낸다.

장흥 생활자원 분야 종합평가회에서 청태전 찾자리 펼쳐

청태전 제다 농가를 대상으로 차의 관능 평가(품질평가) 강의해

전남지부는 지난 12월 7일 장흥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생활자원 분야 종합평가회에서 청태전 찾자리 및 개인 찾자리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태전, 호밀빵 등 장흥지역 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제품들이 선보여 농촌 융복합 사업 우수성과 확산 및 평가의 시간 가졌으며, 전남지부의 청태전 찾자리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장흥 농업기술센터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청태전 보존회(총무: 위인숙)와 전남지부가 함께 펼친 일선 학교에 청태전 알리기, 탐진강 지역에서의 청태전 찾자리, 청태전보존회 회원교육 등의 노고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서난경 지부장은 11월 18일 청태전 제다 농가를 20여 업체를 대상으로 차의 관능 평가(품질평가)를 강의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품평 진행을 맡은 전남지부 회원들의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는 칭찬이 많았다.

글_대학원생 나혜영



전 북 지 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다도교실' 1기 시작

이림 지부장 다도교육으로 차인 양성



지부장 이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이 림 지부장이 강의하는 다도교실이 2023년 2월 1기가 시작되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초 다도교육을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며, 매년 이곳을 통해 기초반을 수료하고 사범교육생 과정에 들어오는 사범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서 다도교실이 활성화되어 20명이 넘는 인원이 채워졌다. 1기를 시작으로 올해도 다도교실에 흥미를 느끼고 꾸준히 차생활을 하는 사범생들이 배출되기를 희망해본다.



전북지역 차인들의 '송년 차인의 밤' 행사 열려

80여 명 회원 한자리에 모여 다담 시간 가져

지난 연말 12월 1일에 전북지역 차인들을 위한 '송년 차인의 밤'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 위협의 상황 속에서 큰 규모의 모임은 차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조출한 송년 행사를 했다. 모처럼 80여 명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소규모의 찾자리도 펼쳐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다

담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치르지 못했던 지부 회원들의 공로상(강길임, 조남숙, 조경우, 이종원), 봉사상(김기순, 김미경, 손혜란, 이미경) 수상도 있었으며, 이 림 지부장을 비롯한 지도위원이신 혜명 스님의 덕담과 회원들의 멋진 찾자리 준비 및 후원으로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다. 모두 건강하게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길 기원해 본다.



충 북 지 부

제18회 국제차문화교류전 ‘유어다예’ 개최

2022년 스리랑카 홍차와의 만남, 2023년 대만 차문화와 만남 계획



지부장 박숙희

충북지부는 충청북도 후원으로 제18회 『국제차문화교류전-스리랑카 홍차와의 만남』을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청주문화산업단지 동부창고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참여 인원 30명으로 제한된 본 행사는 우리나라, 스리랑카의 차문화를 함께 알아보는 자리로 최소연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박광옥 부회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박경숙 경북지부장이 함께하였다. 먼저 생활다례는 이병숙, 신승연, 임미희 사범이 시연하였고, 규방다례는 임미희, 정미식, 신승연, 정운경, 정미영 사범이 김선경 전문사범의 해설로 시연하여 모두 호평을 받았고, 스리랑카 이레샤 강사의 <스리랑카 7대 산지차> 특강과 시음회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박숙희 지부장은 ‘서로 다른 나라의 차문화 속에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더 발전시키는 특징을 갖는 차문화 국제교류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로 우리 모두에게 화합과 안정을 주고 있다’며 인사 말씀을 하였다. 차 전문점이 늘고



있는 시류에 발맞추어 차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차문화 및 전통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제차문화교류전은 많은 관심을 받는 충북지부의 주요 행사



이다. 2023년에는 <대만 차문화와의 만남>을 주제로 대만을 직접 방문하여 차문화교류전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 지부 임원진 신년회 하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으로 지부 발전에 앞장설 것 다짐

1월 5일(목) 17시 30분 우리 지부 임원진 신년회를 청주 운천동에서 가졌다. 돈가스를 저녁으로 먹고 홍차전문점에서 홍차를 마시고 신임 임원진 소개 후 새해 설계를 위한 회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지부의 새로이 이사를 맡게 된 김동례, 전근화, 김선경 사범의 인사와 새로 업무를 맡은 정운경 교육실장, 신승연 사무국장, 정미영 사무간사의 인사와 더불어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지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20명)



2급-제23-1084호 조 *
2급-제23-1085호 김 *희
2급-제23-1086호 안 *현
2급-제23-1087호 이 *련
2급-제23-1088호 정 *수
2급-제23-1089호 박 *정



2급-제23-1090호 이 *경
2급-제23-1091호 김 *순
2급-제23-1092호 김 *이
2급-제23-1093호 박 *분
2급-제23-1094호 박 *란
2급-제23-1095호 김 *옥



2급-제23-1096호 강 *식
2급-제23-1097호 김 *라
2급-제23-1098호 김 *영
2급-제23-1099호 박 *숙
2급-제23-1100호 윤 *숙
2급-제23-1101호 이 *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3명)



2급-제23-1102호 정 *희
2급-제23-1103호 조 *영
3급-제23-963호 진 *빈
3급-제23-964호 김 *아
3급-제23-965호 송 *진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20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강원	조 *	2급-제23-1084호
2	경남	김 * 희	2급-제23-1085호
3	경남	안 * 현	2급-제23-1086호
4	경남	이 * 련	2급-제23-1087호
5	경남	정 * 수	2급-제23-1088호
6	서울제1	박 * 정	2급-제23-1089호
7	서울제1	이 * 경	2급-제23-1090호
8	충남	김 * 순	2급-제23-1091호
9	충남	김 * 이	2급-제23-1092호
10	충남	박 * 분	2급-제23-1093호
11	광주	박 * 란	2급-제23-1094호
12	순천	김 * 옥	2급-제23-1095호
13	전남	강 * 식	2급-제23-1096호
14	전남	김 * 라	2급-제23-1097호
15	전남	김 * 영	2급-제23-1098호
16	전남	박 * 숙	2급-제23-1099호
17	전남	윤 * 숙	2급-제23-1100호
18	전남	이 * 미	2급-제23-1101호
19	전남	정 * 희	2급-제23-1102호
20	전남	조 * 영	2급-제23-1103호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취득자(10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경남	김 * 희	인성교육2급-제23-85호
2	경남	안 * 현	인성교육2급-제23-86호
3	경남	이 * 련	인성교육2급-제23-87호
4	경남	정 * 수	인성교육2급-제23-88호
5	서울제1	박 * 정	인성교육2급-제23-89호
6	서울제1	이 * 경	인성교육2급-제23-90호
7	충남	김 * 순	인성교육2급-제23-91호
8	충남	김 * 이	인성교육2급-제23-92호
9	충남	박 * 분	인성교육2급-제23-93호
10	광주	박 * 란	인성교육2급-제23-94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취득자(3명)

번호	지부	이 름	자격번호
1	광주	진 * 빈	3급-제23-963호
2	순천	김 * 아	3급-제23-964호
3	순천	송 * 진	3급-제23-965호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고품격 '차문화' 지(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창간 이후 무광고로 발행했던 '차문화'지에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계간 차문화

- 판형 : 4×6 배판(188mm×257mm)
- 면수 : 100면 내외
- 색도 : 올컬러
- 발행부수 : 5,000부
- 배포 : 차문화 전회원을 비롯하여 일본 및 전국 차관련 유관 단체

광고 신청 접수

-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 신청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전화 : 02-719-7816)
- 광고 할 내용과 사진/ 광고필름/ PDF 파일/ JPGA 파일 접수함
- 접수된 광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함

선정 된 광고 게재 혜택

- 회원 및 전국의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광고 효과 기대됨.
-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효과 기대됨.

광고 게재 금액 (연간 계약시 1회 무료)

- 표지4 (겉 표지) 1회 1,000,000원
- 표지3 (안 표지) 1회 500,000원
- 내지 1장 (1 페이지) 1회 300,000원
- 내지 ½장 (반 페이지) 1회 200,000원



문의: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T. 02-719-7816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12월~2023년 2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39,600,000원)
부회장 · 이 립 (10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강정자 (1,500,000원)	광주지부장 · 박해란 (500,000원)	이사 · 이막동 (1,000,000원)
부회장 · 박숙희 (1,500,000원)	신임이사 · 류소영 (1,000,000원)	이사 · 최정희 (1,000,000원)
부회장 · 이 립 (1,500,000원)	신임이사 · 장호순 (1,000,000원)	이사 · 허경님 (1,000,000원)
부회장 · 차영민 (1,500,000원)	이사 · 연규남 (1,000,000원)	
교토지부장 · 조화미 (2,000,000원)	이사 · 이광용 (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조 설
경남지부 · 김경희, 안미현, 이숙련, 정태수
교토지부 · 교토지부 일동
광주지부 · 박금란
대구경북제2지부 · 장영자, 박영순, 한두희, 박순전, 박남희, 이윤희, 손귀자, 권영희
서울제1지부 · 김은정, 박은정, 이은경
순천지부 · 김여옥, 조혜숙
전남지부 · 이정희, 강현식, 김나라, 김라영, 박현숙, 윤영숙, 이영미, 정은희, 조화영, 성애숙, 김은주, 김옥임
전북지부 · 김미지, 이정희, 조황래, 전서령, 손혜란, 이현숙, 조남숙, 순은주, 이성자, 이봉숙, 김소영, 최성숙, 전정선, 장미경, 박영숙, 이종원, 한영순, 진화순, 이형자, 장은주, 김재선, 유지혜, 김인순, 이미경, 정미영, 전순경, 최병이, 고정옥, 문정엽, 김찬순, 한경화, 양옥임, 최성희, 정문화, 조 경우, 박은경, 신홍숙, 박미자, 조경순, 김명미, 김금숙, 박미자
충북지부 · 홍경숙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2년 12월~2023년 2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12월 통장 입금

전남 · 이정희 / 대구경북제2 · 이윤희, 권영희, 손귀자, 장영자, 박남희, 한두희, 박
영순, 박순전 / 서울제1 · 김은정 / 서울제2 · 허유진, 박정향, 윤송희, 이정옥

1월 통장 입금

강원 · 조 설 / 경남 · 변종순, 김경희, 이숙련, 안미현, 정태수 / 광주 · 박금란 / 서
울제1 · 이은경, 박은정 / 순천 · 김여옥 / 전남 · 조화영, 김나라, 정은희, 김라영, 강
현식, 이영미, 박현숙, 윤영숙 / 충남 · 김경순, 박상분, 김둘이

2월 통장 입금

광주 · 박혜란 / 서울제1 · 최정희 / 서울제2 · 류소영, 장효순 / 순천 · 조혜숙 / 전
남 · 성애숙, 김은주, 김옥임 / 전북 · 김미지, 이정희, 조황래, 전서령, 손혜란, 이현
숙, 조남숙, 순은주, 이성자, 이봉숙, 김소영, 최성숙, 전정선, 장미경, 박영숙, 이종
원, 한영순, 진화순, 이형자, 장은주, 김재선, 유지혜, 김인순, 이미경 2급, 정미영,
전순경, 최병이, 고정옥, 문정엽, 김찬순, 한경하, 양옥임, 최성희, 정문화, 조경우,
박은경, 신홍숙, 박미자, 조경순, 김명미, 김금숙, 박미자, 이 림 / 천안 · 홍성숙 /
충북 · 박숙희, 홍경숙



兔歲添福 토세침복

입춘대길 만사여의형통 토세침복(立春大吉, 萬事如意亨通, 兔歲添福)입니다.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형통
하고 토끼의 해 福이 더욱 넘치길 기원 드립니다. 육십갑자의 마흔째, 천간은 흑색을 상징하며, 지지는 토끼
를 상징한다. 그래서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이다.

2월 19일은 우수(雨水)이고 보름 후면 경칩(驚蟄)이다. 그러나 아직도 찬 기운이 귓볼을 스친다. 추운 날에
는 특히 몸을 보충해 주는 음식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찬 계절에는 쌀을 먹고, 여름에는 보리를 먹어 몸을
보양을 한다는 말이 있다. 차가운 철은 쌀밥을 권하는 것은 천지(天地)가 음기(陰氣)로 가득 찬 겨울에 따라
온 땃별 속에서 영근 쌀에서 양기를 취하여 음양(陰陽)의 조화를 이루고, 여름에는 엄동(嚴冬)의 눈밭에서
자란 보리에서 냉기를 취하여 모자라는 음기(陰氣)를 보강하려는 것이다.

벌써 꽃피는 봄, 세월은 전광석화(電光石火) 번갯불 같이 빠르다. 검은 토끼의 해 뜨끈한 쌀밥으로 양기(陽
氣)를 보충하고 한 잔 茶로 몸을 맞고 새로운 기운으로 시작하자.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미연, 동다송, 다산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등양화와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혼도를 읽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冥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冥寶鼎의 禪茶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